



INNOVATION AND RESILIENCE FOR A MORE SUSTAINABLE WORLD

더욱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혁신과 회복 탄력성

연례 보고서 2019-2020

TABLE OF CONTENTS

CEO 인사말	2
숫자로 보는 공정무역 활동 개요 2019.....	3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코로나19 대응.....	4
변화하는 무역, 변화하는 삶: 국제공정무역기구의 글로벌 5개년 전략(2016-2020)의 성과.....	6
생산자와 노동자를 위한 이윤 구축.....	7
생계소득	7
생계 임금과 노동자 권리.....	8
공정무역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임팩트 증대.....	11
무역관계 강화를 통한 성공적인 비즈니스 구축.....	11
성 평등.....	14
기후 변화.....	16
인권.....	18
공정무역 시장 구축.....	19
생산자 판매량.....	19
새로운 공급망 개발.....	22
신흥 시장에서의 공정무역 시장 확대.....	22
유럽에서의 지속가능한 선택에 대한 수요 증가.....	23
정부 정책에 미친 영향.....	24
강력한 글로벌 시스템 구축.....	25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윤리 강령 및 모범 사례.....	25
강력한 생산자 네트워크.....	25
더욱 효율적인 협력을 위한 도구.....	25
국제공정무역기구 회계보고서 및 운영 이사회.....	26



지난 해,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생산자들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높은 수준의 회복력과 적응력이 필요했습니다. 공정무역 생산자들과 노동자들은 국제공정무역기구를 통해 안전 및 위생 용품, 비상 식량, 그리고 보건소 운영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각 사업을 환경에 맞게 변화시켰습니다. 총3개의 대륙 별 공정무역 생산자 네트워크 역시 기존의 대면 방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할 혁신적인 방법을 찾았고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채널을 개설함으로써 생산자들을 지원했습니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기업, NGO 및 정부 기관들의 파트너십 덕분에 생산자 구제 및 회복을 위한 기금에 1,500만 유로 이상(한화 200억원 이상)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공정무역기구 생산자 네트워크는 이미 580개 이상의 생산자 조합에 기금을 분배하여 약 475,000명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단지 긴급 기금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생산자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생활 환경과 공급망에서의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무역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국제공정무역기구가 핵심 이니셔티브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현재 바나나, 커피, 코코아의 공정무역 생산 기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별히 더 나은 수준의 생계 임금과 생계 소득 달성에 기여하는 해결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노동자 인권 보호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제공정무역기구 생산자 네트워크는 여성을 지도자로 양성하고 생산자들이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시스템을 통해 약 15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과 다양한 기업 파트너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노동자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공정무역기구는 현재의 위기와 더욱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1년도 초에는 새로운 글로벌 전략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Darío Soto Abril
국제공정무역기구 글로벌 CEO

숫자로 보는 공정무역 활동 개요 2019

1,822

2019년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 조합 수



2019년 공정무역
바나나 생산자들의
판매량 증가

▲ 9%

공정무역 인증 기업 수

2,785

공정무역 인증 제품 수 약

35,000여 개



2019년 주요 공정무역 제품
7개의 생산자들이 받은
공정무역 프리미엄 장려금



2,542억 원

2019년 공정무역 제품이 판매된 나라

145 개국



2019년 커피 생산자들이
받은 공정무역 프리미엄 장려금

1,133억 원



72개국

170 만명 의 생산자와 노동자

2019년 코코아 생산자들이
받은 공정무역 프리미엄 장려금



590억 원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와 제품들에 대한 가장 업데이트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fairtrade.net/impact

국제공정무역기구 연구자료와 다른 보고서는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www.fairtrade.net/library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및 혁신의 가속화

2020년 초,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팬데믹으로 세상은 급격히 변화하였다. 이미 남반구의 불안정한 생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산자들과 노동자들은 팬데믹의 여파가 식량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극단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생산자들이 원료 생산에 필요한 비료를 갖추는 과정부터 항구를 통해 출고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 나아가, 폐업으로 인해 사람들이 해고되거나 시장에 상품을 진열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코로나 19의 여파가 전 세계 곳곳으로 퍼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전 세계가 글로벌 경제를 통해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한편, 자신들 각자의 위험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상 속의 영웅,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들이 있다.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 그들에게겐 독창성, 유연성, 그리고 협력이 필요했고,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이들이 공정무역 장려금(공정무역 프리미엄)을 보다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자들은 각자 받은 공정무역 장려금을 지원이 시급한 곳, 가족을 위한 생계,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

공정무역 생산자와 노동자들, 도전에 직면하다

아래는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들이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무역 장려금(이하 공정무역 프리미엄)을 사용하여 발 빠르게 대응한 몇 가지 모범 사례이다.

- 케냐에 있는 오세리안 개발회사(Oserian Development Company)는 코로나 19로 인해 항공편 운항이 결항하여 장미를 수출할 수 없게 되자, 공정무역 프리미엄 기금을 통해 노동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판매를 위한 마스크를 제작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였다.
- 파라과이에 있는 공정무역 인증 사탕수수 생산자 조합인 아파카쿠(APACACU)는 공정무역 프리미엄 기금을 사용하여 지역사회에 위생 장비를 제작하여 배포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 내의 소비를 위해 개인 정원을 가꾸거나 현지에 판매할 수 있도록 씨앗을 제공했다.
- 태국 동북부에 있는 공정무역 인증 쌀, 종자기름, 그리고 콩을 생산하는 남움 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 그룹(NamOm Community Enterprise Group)은 태국 공군과 협력하여 인근 어촌에 긴급 쌀 배급을 지원하였고 지역 사회를 위한 어류 공급을 지원받았다.

국제공정무역기구,
새로운 두 가지 기금을 통해 자원을 조달하다

더 나아가, 공정무역 시스템은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 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총 3개의 대륙 별 공정무역 생산자 사무소는 북반구의 국제공정무역기구 기관들로부터 지원 받은 310만 유로의 초기 자금 모금을 즉각적인 구제와 장기적인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적에 따라 기금을 분배하였다.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580개 이상의 생산자 조합에서 약 47만 5천여 명 이상의 생산자들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받았다.

기업과 기금 기부들 역시 이 두 가지 기금 모집을 통해 1500만 유로 이상의 금액이 모일 수 있도록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투자는 현장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생산자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에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 기금은 지역 사회의 식량과 수입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쓰이거나 새로운 사업 모델 및 기후 회복에 대한 투자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생산자들의 기금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http://fairtr.de/relieffund](http://fairtr.de/relieffund)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새로운 방법

2020년 초, 기존의 사업 방법은 급격한 변화를 피해야만 했고, 국제공정무역기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페루에 위치한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 생산 조합은 수확을 지속하는 한 편, 커피 원두를 가공하는 50개의 가공 센터를 개조하여 지속적인 수확을 보장하면서도 위생적인 작업 환경과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 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국제공정무역기구의 3개의 대륙 별 공정무역 생산자 네트워크는 대면 교육이나 방문을 대신하여 온라인 채팅 앱, 온라인 웨비나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공정무역 생산자들에게 최신 자료와 지침을 정기적으로 공유하였다. 더 나아가,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여성 리더십 학교 프로그램은 코트디부아르(Côte d'Ivoire)에 위치한 코코아 농장 중심의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네 개의 다른 장소에서 가상 졸업식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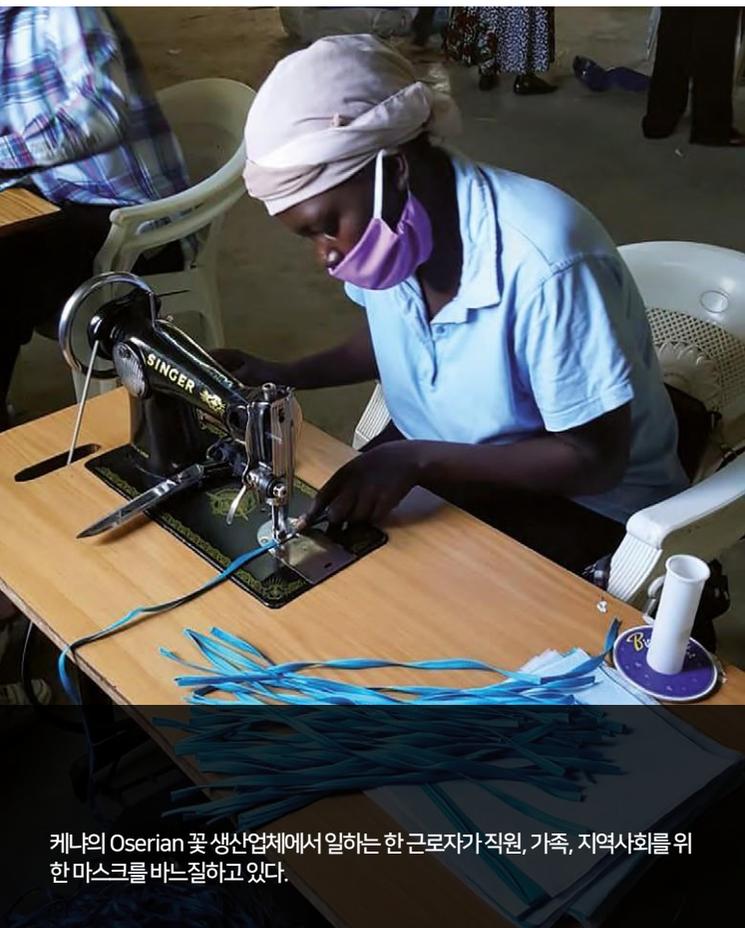
콜롬비아에 위치한 한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자 조합(Cooperativa de Caficultores del Alto Occidente de Caldas)에서는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교통이 마비되자 커피 농장의 생산자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커피 수확을 시작했다. 이 방안은 특히 고령층인 생산자들이 대규모로 모이거나 긴 줄을 서 기다리게 하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였다.

“공정무역 인증은 저희 협동조합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인증된 커피를 판매하여 공정무역 장려금을 지급받고, 이를 우리 조합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팬데믹으로 고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정무역은 생산자들이 지속적으로 커피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정무역 인증이 우리에게 주는 큰 장점입니다.”

César Julio Díaz,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 생산 협동조합
(Cooperativa de Caficultores del
Alto Occidente de Caldas) 최고 관리자



페루에 위치한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 생산자 조합 ACOPAGRO(Cooperative Agraria Cacaotera)의 조합원들이 코로나 19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품을 착용한 채, 코코아 집하장 환경을 개조하고 있다.



케냐의 Oserian 꽃 생산업체에서 일하는 한 근로자가 직원, 가족, 지역사회를 위한 마스크를 바느질하고 있다.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생산자들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G20 정부들에게 생산자와 노동자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인구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 확보를 목표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봉쇄령 기간 동안에 일자리나 수입을 보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인 보호 장비(PPE) 공급, 의료 및 사회 안전망 확보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들에게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맥락에서 이러한 지원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정무역 협의기구인 Fair Trade Advocacy Office와 다른 시민 사회 기관들과 협력하여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세계적인 공급망이 후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코로나 19에 대한 “더 나은 대응”을 촉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가 사람, 노동자, 그리고 환경에 대한 권익을 존중하고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장려하는 정책과 사업을 펼쳐, 무역의 이익이 보다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요구하였다.

국제공정무역기구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공정무역 생산자 네트워크인 CLAC(La Coordinadora Latinoamericana y del Caribe de Pequeños Productores y Trabajadores de Comercio Justo) (이하 CLAC)는 “정의의 통한 회복”이라는 슬로건의 일환으로 지역의 식량주권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에는 지속적인 지역 생계 유지와 식량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시민 사회, 소비자, 기업과 생산자들에게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공정무역 시스템

국제공정무역기구의 공정무역은 더 나은 무역으로의 전환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 그리고 전세계의 소비자들과 기업들을 연결하는 글로벌 시스템이다.



- 국제공정무역기구는 공정무역 기준을 제정하고, 공정무역 마크를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 회원 기관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조정한다. 국제공정무역기구 이사회는 위원들이 함께 모여 지배구조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반면, 공정무역 기준 위원회와 같은 다른 대표적인 위원회는 특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린다.



- 총 3개의 대륙 별 생산자 네트워크는 약 170만명 이상의 생산자와 노동자들을 대표하며, 그들을 지원하고 시장을 구축하며, 프로젝트들을 이행하고 있다.

- CLAC: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지원
- Fairtrade Africa: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지원
- NAPP: 아시아 대륙 지원



- 국제공정무역기구의 25개의 국가사무소는 각 국에서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몇몇 사무소는 공정무역 마크 인증을 진행하기도 한다.



- Flocert는 독립된 외부 감사기관으로 모든 공정무역 인증 원료 생산자들과 공정무역 수출입업자들을 감사하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타사 검증을 보장한다.

변화하는 무역, 변화하는 삶: 국제공정무역기구 글로벌 5개년 전략(2016-2020)의 성과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글로벌 5개년 전략 (2016-2020)과 관련된 정보와 국제공정무역기구가 생산자, 노동자, 그리고 그들의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지표를 공유한다.

세계는 기후 변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그리고 극심한 불평등의 주요한 문제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제 무역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는 어두운 현실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다. 국제공정무역 기구는 2021년 초 차기 글로벌 5개년 전략에 착수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양질의 생계를 강조할 것이며, 더불어 미래의 문제들과 기회들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제공정무역기구의 글로벌 5개년 전략 (2016-2020):

1. 소규모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이윤 구축:

새로운 사업 모델을 통한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생계 개선과 생계 소득 및 임금에 집중한다.

2. 공정무역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효과 증대:

생산자와 노동자, 그리고 그들의 지역사회가 그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더 큰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력을 지원한다.

3. 공정무역 시장 구축:

공정무역 인증 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가용성을 확대하여 생산자와 노동자의 판매를 촉진한다.

4. 정부정책에 미친 영향:

생산자와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전하여 모두에게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더욱 포용적이며 공정한 정책을 옹호한다.

5. 강력한 글로벌 시스템 구축: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운영 역량을 구축하며, 통찰력을 향상시켜 의사 결정을 돕는 다양한 도구와 데이터에 투자한다.

1.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이윤 구축

국제공정무역기구의 공정무역 최저가격은 국제 상품 시장의 불안정성과 변동성으로부터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제공한다.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 조합이 원료를 판매한 가격에 추가로 더하여 지급받는 공정무역 장려금(이하 프리미엄)은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그들의 사업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생산자들이 공정무역의 조건 하에 거래할 수 있는 작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최저가격과 프리미엄이 만들어 내는 혜택은 커진다. 2019년도에는 소규모 생산자 조합을 위한 공정무역 기준을 개정하여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들을 위한 더 많은 혜택 마련을 추진하고 시장 충격과 기후 변화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전체적인 전략들을 통해 생산자들의 생계 소득과 생계 임금 보장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계 소득

2019년,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코코아, 커피, 그리고 바닐라 원료 분야에 대해 생계 소득 확보를 목표로 이를 위한 여러 단계에 집중하였고, 2020년 4월에 첫 번째 생계소득 진행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었다.

코코아

2019년 10월, “생산자들의 소득 개선”이란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전략의 일환으로, 코코아 원료에 대한 공정무역 최저 가격과 프리미엄이 모두 20% 인상하는 방안이 시행되었다. 또한, 생계 소득 달성을 이루기 위한 여러 필수적인 투자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눈에 띄게 높은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생계소득 반영가격(Fairtrade Living Income Reference Price)을 자발적으로 지불하고 선도할 준비가 된 기업들과 함께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시범 사업에는 지속가능한 수확량 생산, 서아프리카 코코아 프로그램(WACP)과 같은 강력한 생산자 조합 지원, 그리고 작물 다양화와 같은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프리미엄 투자가 포함되었다. 또한 우리는 농민들이 생계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더 높은 수준의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생계 소득 반영 가격과 다른 지원 요소가 포함된 이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들을 공유하는 데에 전념하고 있다.

▶ <http://fairtr.de/Llcocoa>

“커피는 하나의 원료를 넘어
삶의 방식이고, 제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부이죠.
커피는 저희가 정말 열심을 다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온두라스에 위치한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자이자,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자 조합 Cafés Finos Corquín (CAFICO)의 조합원
Sergio Romero



Genera Campos와 그녀의 남편은 페루에 위치한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자 조합 CENFROCAFE의 조합원들이다. 그들 역시 그들의 수입 증대를 위해 가축을 기르고 있다.



마다가스카르에 위치한 공정무역 인증 바닐라 생산자 조합인 FITAMA에서 바닐라 생산자와 조합원이 바닐라 꼬투리를 햇볕에 말리며 검수하고 있다.

커피

소규모 기업으로서 농장을 유지하는 데엔 농가 재정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경비와 매출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없이는 생산자들은 그들이 얼마의 이윤을 만들었는지, 혹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커피 생산자들이 비용과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농장 운영 기록부 사업을 시행하였다. 독일의 개발기구인 GIZ(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의 지원 자금을 기반으로 관련 재정 기록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기록부를 활용한 농장 경영 앱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 초에는, 총 3개의 대륙의 7개 국가에 위치한 37개의 국제공정무역 생산자 조합의 2만 2천여명 이상의 커피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이 기록부가 배포되었다. 또한, 이 기록부는 바나나와 코코아 생산자들의 작업 환경에 맞도록 추가 제작되었고, 문해력이 낮은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 생산자들을 위한 훈련에도 역시 젠더 요소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어, 가정의 여성들도 비용을 추적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관여할 수 있다.

이 농장 운영 기록부는 지속가능한 생산의 비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적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이 기록부를 토대로 내년도 동안 커피 재배 지역의 생계 소득 반영 가격을 발전시키는 주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바닐라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지속가능한 바닐라 이니셔티브(Sustainable Vanilla Initiative)와 협력하여 2019년 마다가스카르와 우간다의 바닐라에 대한 생계 소득 반영 가격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출간했다. 바닐라는 복잡한 가격 구조를 가진 탓에 때로는 높은 가격에 측정되어 판매되나, 극심한 시장 가격 변동에 매우 취약한 편이다. 생계 소득 반영 가격은 이러한 바닐라 생산자들에게 양질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바닐라 산업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바닐라의 가격 하락과 관련하여 마다가스카르의 정부가 바닐라 농가에 대한 가격 규제 조치를 공고하는데 이 생계 소득 반영 가격이 도움이 되면서, 그 중요성과 관련성이 다시 강조되었다.

생계임금과노동자들의권리

국제공정무역기구는 꽃과 식물, 차, 그리고 신선 과일 산업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고용된 노동자들을 통해 운영되는 생산자 조합들을 인증하고 있다. 최근, 이 인증 작업은 보다 넓은 범위의 산업 전반의 개선을 만들기 위해 점차 그 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된 산업 분야의 노동 부문이 각 나라 안에서 전국적 혹은 국지적으로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넓은 범위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공정무역 관련 매출이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의 전체 수입의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정무역 원료로 더욱 큰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모든 공정무역 원료 구매자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바나나

노동자의 권리의 부문과 관련하여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더 나은 임금과 이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의 일환으로 노동 관리협상, 즉 노사간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가나와 페루에서 열린 워크숍에서는 노동조합 대표 및 경영진이 한 데 모여 임금, 성별, 보건 및 안전, 그리고 노동 분쟁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했다.

2016년 이래로 공정무역 인증 바나나 생산자들의 생계 임금 향상 역시 국제공정무역기구의 또 다른 전략적 목표였다. 그 중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는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노사 협상 과정을 이끌어 국민들의 “양질의 임금”을 생계 임금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큰 성과를 이루어 냈다.



파나마에 위치한 공정무역 인증 바나나 생산자 조합인 Cooperativa de Servicios Múltiples Bananera del Atlántico (COOBANA) 의 노동자가 바나나를 포장하기 전에 세척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도에 위치한 공정무역 인증 차 생산자 조합 (United Nilgiri Tea Estates Company Limited)의 한 생산자가 차를 수확하고 있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특히 콜롬비아의 공정무역 인증 농가의 생산자들과 노동조합장 대표, 그리고 경영진의 협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많은 협의와 모델 개발 끝에, 2020년, 드디어 바나나와 차 농장을 중심으로 고용 노동 환경에서의 생계 임금을 촉진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 조건들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신선 과일류에 대한 공정무역 기준 개정 초안에는 각 국가의 생계임금 수준을 반영하여 설정된 기본급에 대한 제안이 실렸다. 이 제안은 고용주가 생산자 조합 내에서 선발된 노동자 대표와 함께 임금을 생계 임금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는 기본 조건과 더불어 새로운 조건들이 결합되어 명시되어 있다. 새로운 조건에는 공정무역 차 기준 개정의 일환으로 차 재배 업종의 일용직 종사자 임금 향상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또한, 일용직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이 직업 관련 훈련이나 감사, 근무지에서의 젠더, 보건 및 안전 요건, 그리고 준수 사항에 대한 교육에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러한 협의 결과는 2021년에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차

인도의 아쌈(Assam)과 다즐링(Darjeeling) 지역의 4개년 프로그램은 6개의 공정무역 인증 차 생산자 조합에서의 생산자들을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약 9천 2백여명 이상의 전체 생산자 중 무려 63%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ALDI Nord 그룹의 회사들의 지원을 받았고, 공정무역 프리미엄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지역 사회 개발을 강화하는데 집중되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의 건강과 영양을 개선하거나, 생계를 마련하여 저축을 촉진하고, 여성 노동자들이 그들의 권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화훼

지난 2017년,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최저 임금 요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이행하였다. 이 평가를 통해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그리고 우간다 지역의 공정무역 인증 화훼 농가의 임금이 지난 3년간 약 30~100%까지 상승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정무역의 보장된 최저 임금 개념은 네덜란드의 화훼업계에서도 업계 전반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보고서 24쪽에서 생계 소득과 생계 임금에 대한 국제공정무역기구의 더 많은 옹호 활동들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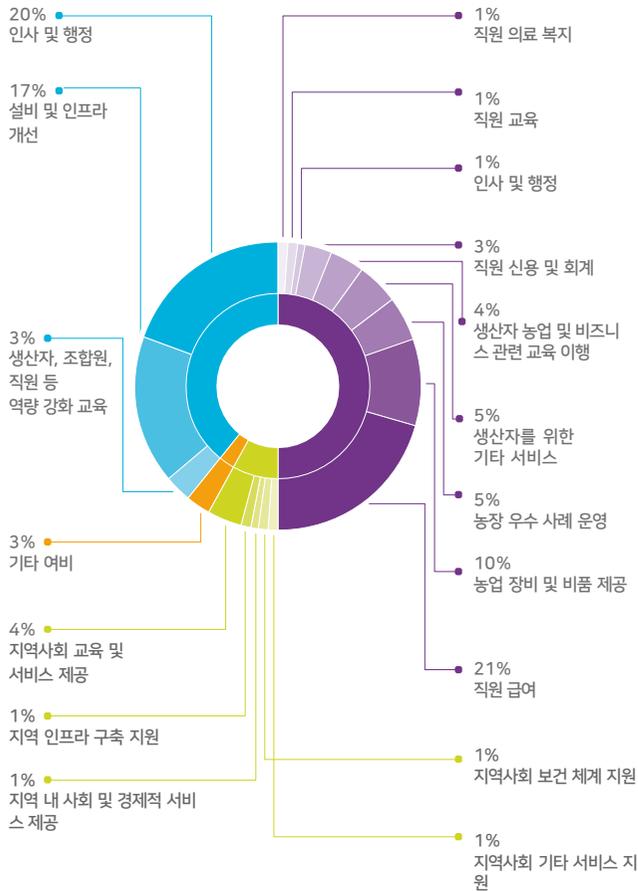
Agnes Chebii 는 케냐에 위치한 공정무역 인증 꽃 생산자 조합인 Karen Roses Ltd에서 약 20년간 근무해왔으며 생산자 조합의 젠더 위원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http://fairtr.de/agneschebii>

공정무역 생산자 조합에서 사용된 공정무역 프리미엄

공정무역 프리미엄(추가 장려금)은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혜택 중 하나이다.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 조합은 모든 공정무역 원료 판매와 더불어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 받는데, 그들은 이 공정무역 프리미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민주적으로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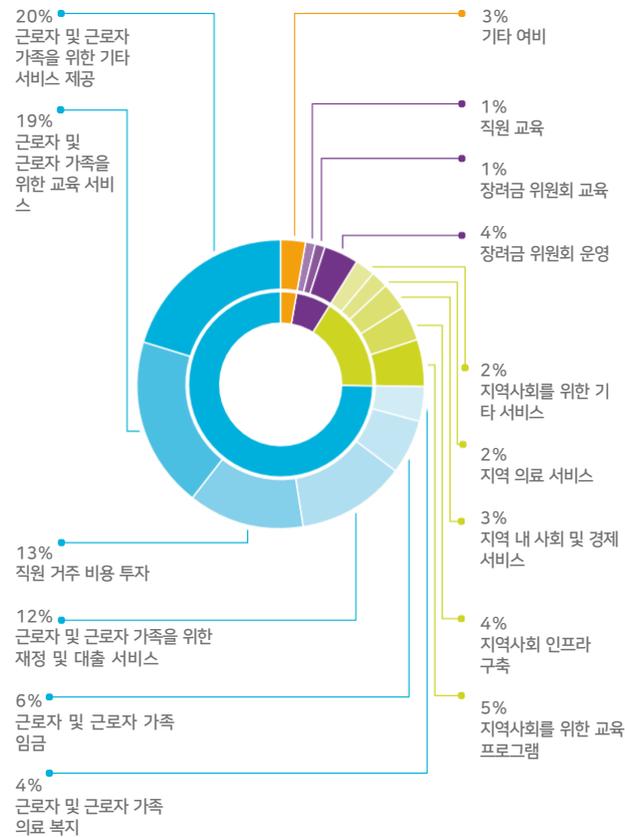
2018년 공정무역 인증 소규모 생산자 조합의 공정무역 프리미엄 사용 내역



● 생산자 조합 내 투자	41%
● 기타	3%
● 지역 사회 서비스 제공	8%
● 농장 조합원 서비스 제공	48%

지수가 반올림됨에 따라 전체 합산이 100%가 아닐 수 있다.

2018년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고용 종사자 단체의 공정무역 프리미엄 사용 내역



● 기타	3%
●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서비스	75%
● 지역 사회 서비스 제공	16%
● 직원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6%

2018년에 발행된 보고서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발표된 연도의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

공정무역 프리미엄의 이용과 영향에 대한 참여적 분석

혼합 방식을 기반한 본 연구는 공정무역 장려금(이하 프리미엄)이 공정무역 인증 조합들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와 이 프리미엄의 사용이 공정무역 생산자와 지역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루어진 총 5개의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페루에 위치한 공정무역 인증 커피/코코아 소규모 생산자 조합(SPO),
2. 코트디부아르에 위치한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 소규모 생산자 조합(SPO),
3. 에콰도르에 위치한 공정무역 인증 바나나 소규모 생산자 조합(SPO),
4. 케냐에 위치한 공정무역 인증 화훼 생산자 조합.

2011~2016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생산자와 노동자에 대한 개별적인 서비스 투자 부분(5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생산자 조합에 대한 투자(35%)와 지역사회 프로젝트(9%)가 뒤를 이었다.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 조합의 필수 조건인 공정무역 프리미엄 위원회와 같은 구조를 통해 생산자와 노동자는 더욱 목소리를 높일 수 있으며, 그들의 필요에 따라 프리미엄의 사용처를 정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생산자 조합에서 별도로 공정무역 프리미엄 관련 의사결정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장하며, 공정무역 프리미엄 활용 계획과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더해야 한다. 또한, 서로 가까운 생산자가 지역사회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후원하기를 장려하며, 공정무역 프리미엄을 사용한 내역과 데이터를 개선하도록 권장한다.

이러한 제안 사항들은 이미 소규모 생산자 조합을 위한 공정무역 기준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예를 들어, 공정무역 기준의 개정에 따라, 생산자 조합은 각 조합의 수요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립한 개발 계획에 공정무역 프리미엄에 대한 지출 내용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공정무역 기준은 각 조합은 공정무역 프리미엄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장한다. 공정무역 프리미엄 자금으로 연간 십 오만 유로 혹은 US달러 이상을 받은 조합에 한해서는 그 금액의 계좌 및 지출에 대한 외부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2. 공정무역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효과 증대

국제공정무역기구의 미션은 단순히 농업 생산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공정무역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넘어, 생산자와 노동자들이 그들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보다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국제공정무역기구의 3개의 대륙 별 생산자 네트워크는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조합을 대상으로 올바른 조합 관리 방식과 우수한 농업 관례에 대한 교육부터 기후 회복 전략과 성 평등 및 아동 권리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역관계강화를 통한

성공적인비즈니스구축

국제공정무역기구 생산자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 목표는 생산자들이 더욱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기업가나 지역 사회 리더로서 역량을 키우고 성장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자들의 비즈니스 역량을 키우다

아시아-태평양 공정무역 생산자 네트워크 (이하 NAPP: Network of Asia & Pacific Producers)는 중앙 아체 지역(Central Aceh)과 수마트라(Sumatra) 지역에 위치한 8개의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자 조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사업 개발과 관련하여 원료 품질, 원료의 추적가능성, 식품 안전성, 시장 접근성, 자금운용법, 홍보 및 마케팅, 그리고 수출과 로지스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NAPP의 서비스를 통해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 조합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자들이 더 강력한 무역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 중 하나이다. 또한, NAPP의 자문관들 역시 각 조합의 개별적인 상황과 요구의 세부적인 변화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였다.



목화 농부 Katha Mahananda 는 인도에 위치한 공정 무역 인증 목화 생산자 조합 Pratima Organic Grower Group 의 조합원이다.



콜롬비아에 위치한 공정무역 인증 바나나 생산자 조합 Asiana의 조합원 Yadira Orzoco는 공정무역 프리미엄을 사용하여 새로운 창고와 위생 시설, 그리고 관개시설을 짓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에 위치한 공정무역 인증 바나나 생산 조합인 APMB(Asociación de Productores de Bananos Las Mercedes)의 조합원 Fabio de la Cruz는 공정무역을 통해 생산성과 매출을 높였다.

남미(라틴 아메리카)의 공정무역 인증 바나나 생산자: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국제공정무역기구의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공정무역 생산자 네트워크(이하 CLAC)는 7개국에 위치한 29개의 공정무역 인증 바나나 생산자 조합을 대상으로 바나나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는 그들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법을 통해 작물의 품질과 생산량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직접적인 프로그램 참가자를 넘어 다양한 생산자들에게 관련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행되었다.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PIP: Productivity Improvement Programme)은 바이오 살충제 및 바이오 비료의 생산, 그리고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교육을 중심으로 토양을 건강하고 비옥하게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2015-2019년도 프로그램 참가자



7 개 국, 29 개의 생산자 조직에서 330 명의 생산자와 가족의 농장 생산량 36% 증가

농장 생산량 교육이 도달한 생산자 수: 13개의 생산자 조직에서 410명의 생산자 참여



“저희는 서아프리카 코코아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생산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재정 관리 교육 등, 저희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공정 무역 프리미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가나 쿠쿠움(Kukuom) 코코아 생산자 연합회 회장,
Nana Gyamerah

서아프리카 코코아 프로그램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에 위치한 약 230여개 이상의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 생산자 조합들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관리하는 법, 거버넌스(지배구조) 및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탄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무역 파트너로 성장하고 있다.

서아프리카 코코아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자 조합들은 공정무역 기준에 대한 역량 강화와 훈련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우수 농업 관례, 젠더 관련 권리, 소득 또는 작물 다양화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집중적인 사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약 3만 4천여명 이상의 생산자가 훈련을 받았으며, 이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32%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국제공정무역기구 아프리카 사무소와 국제공정무역기구 본부는 2020년 첫번째 프로그램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Kouame Ehui Edith 는 코트디부아르에 위치한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 생산자 조합인 SCAEK 의 조합원이자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여성 리더십 학교 졸업생이다. 그녀는 조합의 여성 위원회와 더불어 땅콩 버터처럼 지역판매용 농작물 역시 생산하고 있다.

성평등

국제공정무역기구의 공정무역 기준은 협동조합과 작업장 내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다. 중자 자금이나 신용을 사용하여 땅을 매입하거나 농작물을 다양화하는 과정 등에서 여성이 전면적으로 참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있다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생산자 조합과 일터에서의 여성의 참여가 이미 증가하고 있음에도 문화와 법률적인 변화는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한다.

국제공정무역기구의 리더십 스쿨은 여성의 역량과 자신감을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남성들이 이를 지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2019년, 국제공정무역기구 아프리카사무소(Fairtrade Africa)는 여성 리더십 스쿨의 2기 참가자로 코트디부아르의 7개의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 조합을 통해 약 30명의 여성과 남성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더 나아가, 1기로 졸업한 여성 전문가들을 프로그램의 공동 기획자 및 관리자로 초빙하여 그 전문성을 더하였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조합원의 자금 조달을 위한 소득원 다양화 프로젝트를 개발할 예정이며 졸업식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넘어 여성으로서 지속적으로 그들의 프로젝트를 경영하고 서로의 배움을 공유하기 위해 지속될 것이다.

아프리카의 이 성공적인 성 평등 구축 모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 평등 리더십 학교에도 적용되었다. 2019년, 아시아-태평양 공정무역 생산자 네트워크(NAPP) 역시 9개국에 걸쳐 103명의 참가자들을 모집했고 첫 연례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 라오스,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등 각지에서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커피, 설탕, 코코넛 그리고 쌀 생산자가 모였다. 또한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목화와 호두 생산자들도 함께 하였다.

**“코코아 생산업에 종사하면서 여성으로써
대출이 종종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어렵죠. 우리는 여성으로서 마주하는 이런 장벽을 허물기 위해 공정무역 생산자 조합의 여성 위원회를 통해서, 무이자 대출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 위치한 공정 무역 인증 생산자 조합인 SCAANIAS의 조합원이자 여성 리더십 스쿨의 졸업생, Kouao Amah



코트디부아르에 위치한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 조합인 SCAANIAS의 여성 코코아 생산자들이 여성 리더십 스쿨을 통해 카사바(cassava)로 만든 아티케(at tieke)를 생산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젊은 층의 여성과 남성을 성 평등을 중시하는 생산자 리더로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 이번 리더십 모듈은 각각 자기 분석, 양성 평등, 집단 역학 등의 주제를 담고 있으며, 소득 다양화, 전략적 협상 등 다양한 비즈니스 주제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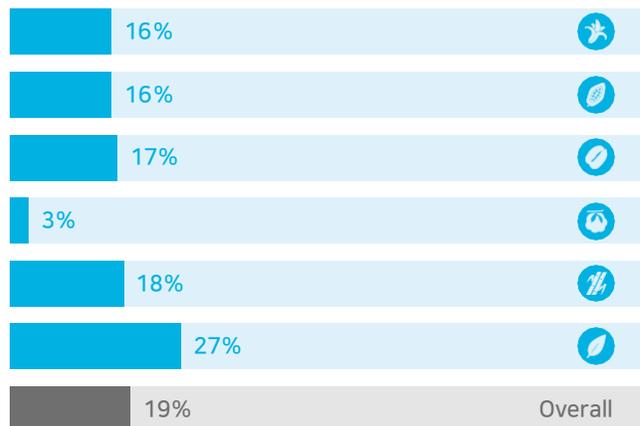


2019년에 모인 성평등 리더십 스쿨의 동아시아 참가자들의 교육 세션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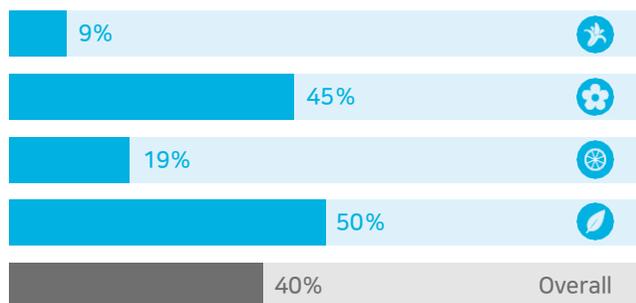
참가자들은 이미 생산자 조합의 경영진들과 함께 놀라운 협력과 참여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여성들은 남편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현실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여성 개인 자체로 농장 작업에 놀라울 정도로 기여하고 있다. 아래 숫자들은 여성들이 실제로 생산자 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비율과 기여도를 보여준다.

상위 6개 소규모 생산자 생산 원료 중 전체 여성 생산자의 비율:



고용 생산자에 의해 재배된 상위 4개의 원료 중 여성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원료의 비율:



(2018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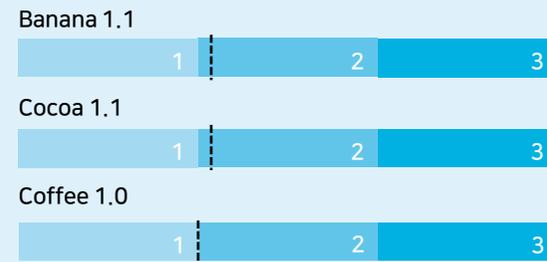
임팩트 모니터링 (효과 관찰) : 젠더 지수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생산자들과 함께 공정무역이 주요 분야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만들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해당 분야로는 생산자들의 소득, 역량강화, 그리고 인권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 이 야심 찬 모니터링 이니셔티브는 2016년 4개 국가에서 공정무역 인증 커피, 코코아, 바나나 등을 생산하는 생산자들, 생산자들의 가정, 그리고 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시작했다. 지난 2019년까지 매년마다 새로운 국가들과 생산자 조합이 추가되었으며, 2021년부터는 이 방문 감사 주기가 다시 반복되어 시행될 것이다.

이 모니터링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생산자 맞춤형 젠더 지수를 개발해왔다. 각 지수의 측정 분야는 아래와 같다:

- ①조직의 지배구조 중 여성들의 대표성(리더십)
- ②조합원으로서, 그리고 경영 역할에서의 여성들의 참여
- ③성 인식 교육, 여성 전용 대출 제공 등 성 평등의 주류화 지원을 위한 활동들
- ④조직 내에 성 평등 정책이 있는 지 여부

각 측정 분야의 전체 점수는 최저점(0점: 낮음)부터 최고점(3점: 높음)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모니터링에 참여한 10개국의 생산자 조직의 평균 지수는 아래와 같다 :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량이 낮은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커피, 코코아, 바나나 등을 생산하는 모든 분야의 생산자 조합과 단체에서 여성들의 조합 내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강력한 지원책과 노력을 더하였다.

또한, 바나나 생산자들은 여성들의 대표성(리더십)을 높이기 위해 뜻 깊은 활동들을 진행해 왔으며, 코코아와 커피 생산자 조합에서는 성 평등을 지속적으로 쟁점화하기 위해 많은 작업들을 이수했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공정무역이 성 평등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엘살바도르에 있는 공정무역 인증 사탕 수수와 커피 생산자 조합인 ATAISI의 조합원인 Cristi Liseth Álvarez de Díaz가 묘목을 들고 있다. 기후에 강한 작물 품종은 생산자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기후변화

기후 아카데미

국제공정무역기구의 기후 아카데미는 총 3개의 대륙 별로 나누어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산발적으로 설치되었다. 각 프로그램들은 생산자들이 기후에 보다 잘 적응하는 새로운 작물을 심도록 훈련하는 것부터, 에너지를 아끼면서도 더욱 효율적인 성능의 콥스토프 기기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작물을 다양화하고 비 농업활동을 통해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것까지 넓은 범위에 서의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NAPP(아시아-태평양 생산자 네트워크 사무소)는 막스 하벨라스 스위스의 지원과 영국 클라이메이트 엣지(Climae Edge)의 제휴를 받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인도 및 베트남에 새로운 기상 관측소를 설치하였다. 이 기상 관측소에는 소형 태양열 센서가 부착되어 이를 통해 기상 정보를 관측한다. 24개의 생산자 조합의 참여와 협조로 운영되고 있는 이 기상관측소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자들은 기후 변화 패턴에 더욱 세밀하고 정확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농장 운영과 농사를 위한 더 나은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볼리비아, 니카라과, 그리고 에콰도르에 3개 국가에 리더십 및 기후 변화 아카데미가 설치되었다. 니카라과와 볼리비아에서는 약 60명의 참가자가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에콰도르에서는 여전히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 과정에는 지배구조 관리법, 기후 적응 방법이 포함된 기후 변화 모델, 그리고 공공 정책과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옹호 모델의 교육 내용이 담겨 있다.

케냐에서는 마차코스(Machakos) 공정무역 인증 협동조합부터 킵케리온(Kipkelion)지역의 공정무역 인증 협동조합까지, 총 10개의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자 조합들이 기후 변화 대응과 소득원 다양화를 주제로 이행된 기후 변화 아카데미에 참가하였다. 국제공정무역기구 아프리카는 4천여 명의 생산자들에게 기후 변화의 영향 축소 및 적응 사례에 대한 교육을 이행했으며, 온실 프로젝트를 통해 약 30만 그루의 식물과 나무를 7천 2백여 명의 생산자들에게 보급했다.



인도에 있는 11개의 생산자 조합에 기후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후 관측소가 설치되었다.



산코파(Sankofa) 제휴 프로젝트를 통한 이행된 기후 스마트(Climate-Smart) 작물 시스템이 생산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산코파(Sankofa) 제휴 프로젝트: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 생산자 조합인 쿠아파 코쿠(Kuapa Kokoo)에서 빵 생산을 위해 Yam(참깨)을 활용하고 있다.

모리셔스의 기후 스마트(Climate-Smart) 사탕수수

공정무역 인증 사탕수수 생산자들과 국내 비영리 수출처인 모리셔스 슈가 신디케이트(Mauritius Sugar Syndicate)가 협력하여 사탕수수 생산에 있어서의 탄소 및 물 발자국을 평가하는 프로젝트를 이행하였다.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들과 모리셔스 시민들에 의해 조사된 독립적인 연구 보고서는 공정무역 인증 설탕과 일반 설탕의 가공 및 수출 과정에 대해 담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모리셔스의 공정무역 인증 사탕수수 생산의 물 발자국이 글로벌 설탕의 평균 수치보다 훨씬 더 좋은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추가적으로, 공정무역 인증 사탕수수의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은 주요 사탕수수 생산국에 위치한 일반 사탕수수 농장에 비해 월등히 나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설탕 가공 단계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바가세(bagasse)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는 국가 전력망에서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이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더욱 감소시킨다.

이 보고서는 모리셔스의 공정무역 인증 사탕 분야가 현재 얼마나 지속가능한지를 보여주며, 향후 탄소 배출량과 물 발자국을 더욱 줄이기 위한 권고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모리셔스 슈가 신디케이트(Mauritius Sugar Syndicate)의 2019-2020 연례 보고서에 요약되어 있다.

산코파(Sankofa) 제휴 프로젝트: 산림농업과 생계의 다양화

가나에서는 2019년 시작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 생산자 조합인 쿠아파 코쿠(Kuapa Kokoo)의 2천 5백명의 코코아 생산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프로젝트를 통해 생물다양성, 탄소 배출량 관리, 기후 회복 탄력성 등에 대한 역량과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탄소 배출량 관리는 별개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조합 자체의 공급망 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생산자들이 시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생산자들은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을 선택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산코파(Sankofa) 프로젝트는 여러 이해당사자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으며, 다음 세 가지 관례에 따라 생산자들을 훈련한다.

- **(다양한 산림농업과 작물 다양화)** 지속적인 수입과 식량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재배 주기를 가진 농작물과 나무 경작을 병행한다.
- **(기후 스마트 재배 시스템과 작물 다양화)** Yam(참깨), 카사바(Cassava), 플랜테인(Plantain), 고추(Chili) 등 지역 특산 작물을 추가로 재배하고, 더 나은 재배 환경을 위해 그늘을 조성할 수 있는 나무 재배를 포함한다.
- **(시장 시스템 구축)** 생산자들에 의해 개발된 원료 및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한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민간 사업 파트너들이 말린 망고, 캐슈넛, 파인애플, 코코넛 등 다양한 제품을 가능한 많이 소싱하도록 유도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즉,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여 기후 변화에 더욱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생물 다양성을 지키려는 것이다. 환경적인 경영 구조 실현 역시 핵심 목표인데, 영국 유통업체 Co-op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공급망 내에 약 7만 5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소할 계획이다.

산코파(Sankofa) 제휴 프로젝트는 영국의 유통 체인 Co-op, 스위스 연방 경제부 (SECO), 지속가능한 코코아를 위한 스위스 플랫폼 (SWISSCO), 그리고 덴마크 국제 개발청 (DANIDA) 이 함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무역센터 (ITC)의 액션 프로그램 제휴, 쿠아파 코쿠(Kuapa Kokoo) 코코아 생산자 및 마케팅 노동 조합 기업 (KKFU), 국제공정무역기구 아프리카, 스위스 막스 하벨라르 재단, 세계 자연 보호 기금 (WWF) 스위스 사무소, 스위스 개발 회사 ECOTOP, 사우스 폴(South Pole), 자연&개발재단(NDF), 그리고 Yam(참깨)개발의 회에 의해 이행되었다.

인권

인권은 국제공정무역기구의 미션의 근간이다. 농업 공급망의 일반적인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생계 소득과 임금 부족, 아동 및 강제 노동, 차별, 열악한 근무 환경 및 불안정한 자연 환경 등을 꼽을 수 있다.

본 기구는 공정무역 기준, 프로그램, 그리고 옹호 활동 등을 통해 생산자 조합과 생산자 및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인권 침해 행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 내의 여타 관계자와의 대화 및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올해 초에 인권 헌장을 발표했으며, 이어 이 헌장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보호를 이행하며, 환경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은 다양한 입법 발의를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관련 지침서를 발행하고 있다.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식별 · 대응 모범 사례

공정무역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과 원료 분야에서 빈곤, 안전한 생활에 대한 선택권 부족, 차별 등에 의해 초래되는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은 매우 고질적이고 만연한 행태이다.

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생산자 네트워크들은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아동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정무역기구의 필수권고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아동 노동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서아프리카 코코아 프로그램 참여 생산자 조합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맞춤형 평가에서 3점 만점 중 2.89점을 받아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아동 노동을 예방하는 데에 기여했으며, 아동이 학교에 남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CLAC(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 네트워크)가 멕시코를 포함한 중앙 아메리카의 모든 국가, 안데스 지역의 일부 국가에 걸쳐 116개의 생산자 조합을 대상으로 총 26개의 비대면 교육과 현장 실습을 진행하였다.

2019년에는, 9개국의 생산자 조합이 국제공정무역기구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인 지역 사회 내 청소년 포용 모니터링 및 회복 시스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 시스템의 목표는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아동 노동을 식별하고, 이러한 환경에 놓인 아동과 취약한 성인에게 안전한 대안을 제안하며, 해당 노동 참여 요소를 줄이는 것이다. 벨리스와 피지에 있는 6개의 사탕 수수 생산자 조합은 이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그리고 성적 폭행을 식별하는 등 아주 좋은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모두를 위한 인간 존엄성: 지속가능한 생계와 포용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청년, 장애인들의 지속가능한 생계를 막는 장벽을 허물고 있다. 2019년 핀란드 정부와 스웨덴 우편 복권 기금이 지원한 이 프로그램은 가나에 있는 공정무역 인증 바나나 생산 분야, 말리위에 위치한 공정무역 인증 차 생산 분야,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정무역 인증 포도 생산 분야와 에티오피아의 공정무역 인증 화훼 생산 분야에 걸쳐 폭 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 조합은 2019년 근로자 의료 복지와 안전 개선(+14%), 결사의 자유 강화(+3%), 산업 관계 개선(+44%), 분쟁 해결에 대한 직원 만족도 뿐만 아니라, 생계 임금 수준에 근접한 임금과 작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56%)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서아프리카 코코아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자 조합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 아동 보호, 아동 노동에 대한 교육을 이행하였고, 덕분에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2020년 서아프리카 코코아 프로그램 보고서 첫번째 발행 안

평가: 벨리스의 청소년 포용 및 아동 노동 방지를 위한 커뮤니티(지역사회) 기반의 접근

본 연구는 벨리스 사탕수수 생산자 협의회(BSCFA)에 의해 이행되었으며, 아동 노동 부문에 있어서의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커뮤니티 기반 청소년 포용 모니터링 및 회복 시스템 프로그램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 접근 방식은 2015년 국제공정무역기구에 의해 처음 시범 운영되었으며, 이후 BSCFA 모든 설탕 재배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이 연구의 60명 이상의 응답자들은 포괄적인 접근법을 기반으로 지역 전체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행된 이 시스템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아동 노동을 발견하고 식별하는 부문과 젊은 청년들을 이 프로그램에 리더로서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부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아동 노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포함한 더 많은 자원 조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현재 이 시스템과 4개 국의 코코아 및 사탕수수 생산 조합이 사용하는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에 완료될 것이다.



가나의 아수나포(Asunafo)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 학생이 지방자치단위의 코코아 생산자 및 마케팅 조합이 공정무역 프리미엄 펀드를 통해 받은 지원금으로 카사핀 웨슬리(Kasapin Wesley) 감리교단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3. 공정무역 시장 구축

생산자와 노동자들은 소속된 조합이 공정무역으로 원료를 판매할 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생산자들이 매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제품을 제조하는 데에 있어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공정무역 인증 원료를 소싱하는 등의 새로운 옵션을 고안하였다.

공정무역 프리미엄은 생산자 조합이 커피 생산을 넘어 커피 로스팅 및 포장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사례와 같이 다른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가치 사슬을 넓히는 데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공정무역 프리미엄은 생산자와 협력사 간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고, 원료의 품질이나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기도 하며, 더 많은 판매와 지속가능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국제공정무역 국가 사무소들은 공정무역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한다. 지지자들의 헌신적인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운동은 약 2천여개의 공정무역 타운과 학교 및 대학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공정무역 제품 조달을 이행하고 일상 생활 속의 소비자들의 선택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생산자의 판매량 증가

2019년 대부분의 주요 제품 대해 생산업체의 공정무역 매출 증가세가 높거나 안정적이었다.



바나나

2019년, 공정무역 인증 바나나 매출은 9%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한 대형 유통업체가 공정무역을 채택하여 성장에 기여했고, 공정무역 인증 유기농 바나나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전체 바나나의 1/5이 공정무역 인증 바나나이며 오스트리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공정무역 바나나 중 92%는 유기농 바나나이다. 바나나는 슈퍼마켓에서 주로 손실을 보이는 품목인 연유로 바나나 생산자들은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가격 인하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공정무역 최저 금액과 프리미엄으로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뿐만 아니라 바나나 생산 노동자들의 임금을 생계 임금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 등을 지원하고 있다. (9쪽 참조)



콜롬비아의 공정무역 인증 바나나 생산자 조합인 Agropecuaria El Tesoro S.A.S. 의 한 생산자가 바나나를 세척하고 패키징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코코아

2019년 10월 이래, 공정무역 최저 가격과 공정무역 프리미엄의 인상율이 20%로 조정되어 시행되었다. 이것은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 생산자 조합들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공정무역 프리미엄을 통해 톤당 240달러를 추가로 벌어들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코트디부아르의 생산자들은 기존 가격 대비, 공정무역 매출로 약 1,510만 달러를 더 벌어들였다. 다만, 2019년 공정무역 코코아의 판매 물량 자체는 약 10%가 감소하여, 기업들이 생산자들에게 더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생계소득 수준에 준하는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진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커피

2019년, 공정무역 커피 판매는 5%의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커피 산업의 지속가능성 분야에서의 공정무역 커피의 인지도가 높아진 덕분이었다. 주요 글로벌 브랜드들의 활약으로 캐나다, 미국, 독일에서의 공정무역 커피 판매가 특히 강세를 보였다.

면화

2019년에도 공정무역 면화 매출은 독일에서의 높은 성장세와 함께 꾸준한 성장을 보였다. 이미 공정무역 면화를 채택한 의류 브랜드들은 공정무역 면화 사용을 지속하거나 공정무역 면화 소싱을 확대했으며, 새로운 브랜드들도 합류했다. 더 나아가, '패션 레볼루션'과 '세계 면화의 날'과 같은 연례 캠페인을 통해 식품 분야 뿐 만 아니라 의류와 섬유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화훼와 식물

2019년, 대형 유통업체의 공정무역 화훼 취급 선언의 증가와 스페인에서의 공정무역 화훼 취급을 시작으로 공정무역 인증 화훼 생산자의 매출이 약 13%까지 성장하였다. 케냐의 공정무역 인증 화훼 생산자들과 영국의 수입자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주요 소매업체의 소싱이 증가함에 따라, 영국에서의 공정무역 인증 화훼 생산도 호조를 보였다.

설탕

2019년, 변동성이 워낙 큰 국제 설탕 시장에서 공정무역 사탕수수 수출의 글로벌 매출이 소폭 감소한 반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북미와 유럽시장에서는 안정세를 유지했다. 인도 등 생산국 내에서의 공정무역 설탕 판매 확대를 위한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어 성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국제공정무역기구는 비식용 설탕 시장에서의 개발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차

최대 규모의 공정무역 인증 차 시장인 영국이 안정세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무역 인증 차 생산 업체들은 매출 감소를 보였다. 다만, 시장 전체에서의 일반 홍차의 인기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무역 인증 차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는 한결 같았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는 특산 차와 프리미엄 차 뿐 아니라 차갑게 바로 복용할 수 있는 차 음료 분야이다.

2019년 공정무역 생산자들이 판매한 추정량

원료	판매량	단위	일반	유기농	공정무역 프리미엄 (유로)
 바나나	747,425	MT	42%	58%	€ 36.8백만
 코코아 (코코아 빈)	233,497	MT	88%	12%	€ 44.3백만
 커피 (커피 빈)	218,162	MT	40%	60%	€ 85.4백만
 목화 (목화 린트) ¹	10,265	MT	29%	71%	€ 1.5 백만
 화훼 및 식물	933,783	1,000 Items	100%		€ 8.0 백만
 설탕 (사탕 수수)	175,855	MT	69%	31%	€ 10.3백만
 차 (차나무)	8,041	MT	64%	36%	€ 4.2 백만

MT = metric tonnes

참고

이 표에 있는 자료는 전체 공정무역 생산자들과 노동자들의 90% 이상을 대표하는 상위 7개의 원료에 대한 자료이다. 보고되는 물량은 최종 시장 목적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정무역 조건 아래 판매되며, 발행 당시 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반영한다.

1. 위의 생산자 판매량 데이터는 전년도에 비해 1% 증가한 반면, 당기구의 시장 판매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면화 판매량이 31%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화 공급망 특성상 일부 거래는 해당 연도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거래자와 공급자는 공급망에서 후기 단계에 구매한 재고품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2. 공정무역 프리미엄의 대부분은 미국 달러로 생산자에게 지급되지만,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로 단위로 보고한다. 2019년 상위 7개 상품의 공정무역 프리미엄의 연간 실적 성장률은 2%였다.

임팩트 모니터링: 무역 관계

장기적인 효과 평가 이니셔티브(15쪽 참조)의 일환으로, 국제공정무역기구 생산자들에게 묻는 하나의 공통적인 질문은 공정무역 거래자와 비공정무역 거래자 사이의 더 나은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고된 평가서에 의하면 공정무역 인증 커피 및 코코아 생산자는 공정무역 거래자 뿐만 아니라 일반 거래자와 무역 조건을 협상할 만큼의 향상된 협상 능력을 가졌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공정무역 인증 바나나 생산자들은 평균적으로 공정무역 거래자와의 협상에서 훨씬 나은 수준의 협상 능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공정무역 거래자와의 협상: 72%/ 비공정무역 거래자와의 협상: 44%)

공정무역 거래자와 무역 조건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공정무역 생산자 조합의 비율



전반적으로, 무역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과 조직들이 공정무역 거래자에게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거래자들은 공정무역 최저가격과 프리미엄이 생산자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매우 가시적이라고 평가한다.

공정무역 생산자 조직들을 대상으로 2016년 진행된 인터뷰의 두번째 조사 주기는 2021년에 시작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의 수년간을 걸친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들에게 주요 책임을 맡을 중심 역할과 지위를 부여하고 기후에 관련한 중대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여성들에게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온두라스 공정무역 인증 코코아 조합 및 Xol 초콜릿 공장 관리자, Alejandra Lemus

더 나은 세계, 평등, 그리고 환경

온두라스에 있는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자 조합(COAGRICSA)의 조합원들은 기후와 관련된 식물병과 가뭄 등으로 인해 작물 생산 감소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관한 대응으로, 생산자 조합은 그 지역의 코코아 재배를 되살리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공정무역 프리미엄을 이용해 접붙인 코코아 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보호시설 설립에 부분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였고, 5년 동안 120만 그루 이상의 코코아 나무와 30만 그루 이상의 우거진 나무들을 심어 코코아 재배를 위한 그늘을 만들었다.

이 조합원들은 식물 품종 다양화를 넘어 조합의 가치사슬을 높이고자 자체 브랜드인 Xol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인 새로운 최첨단 코코아 공장은 대부분 전적으로 젊은 여성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생산자 조합의 포용력과 평등한 참여를 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http://fairtr.de/coagricsa>

새로운 공급망 개발

제품 개발은 새로운 공급망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제품 품질의 확립, 식품 안전 기준 준수, 맛 결정과 포장 결정 등에 수 개월이 걸릴 수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NAPP(아시아-태평양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 네트워크)는 잠재적인 커피 거래자와 가공업체들을 공정무역 생산자들과 연결시켜 그들이 원하는 품질, 맛 프로필 등을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2019년에는 자바의 커피 생산자 조합과 영국에 본사를 둔 슈퍼마켓 체인인 웨이트로스(Waitrose)와의 협력 관계를 포함하여 더욱 성공적인 파트너십이 이루어졌다.

중남미에서는, CLAC(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공정무역 생산자 네트워크)가 국제공정무역기구의 "골든컵"이라고 불리는 커피 커피 대회(커피)를 진행하여 생산자들의 고품격 스페셜티 커피를 선보이고 신규 바이어를 유치한다. 지난 3월 콜롬비아에서 31개 공정무역협동 조합의 샘플로 커피 커피를 진행하였으며, 우승자인 Federación Campesina del Cauca 생산자 조합은 국제 커피 품질 기준 100점 만점에 89점을 받았다.

기술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최종 소비자들의 샘플이 기술을 통해 온라인으로 판매된 것이 그 예이다. 연말에 생산자들은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멕시코의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자 조합의 커피가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인 Algrano를 통해 배송되고 등급 별로 분류되어 판매되었다. 브라질도 상황에 보다 적합한 새로운 커피 과정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대회를 운영했으며, 여기에 잠재적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커피 결과와 샘플을 공유할 수 있는 기술 조치도 추가되었다.



2020년 2월, 국제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한 전문가 패널이 콜롬비아에서 열린 국제공정무역기구 '골든컵'에서 커피의 등급을 매기고 있다.

새로운 공정무역 시장 확장

인도는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시장 잠재력이 크면서도 공정무역 인증 원료 생산자를 통해 지역내에 생계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Switch Asia 프로젝트와 국제공정무역기구 인도 사무소의 노력 덕분에, 지속가능한 대체 방안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4월의 패션 레볼루션 주간(Fashion Revolution Week), 11월의 공정무역 주간(Fairtrade Week) 등 만 오천 여 명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만 천 여 명의 어린이들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교육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인도 부탄(Bhutan)지역의 농민 단체와 중소규모의 농업 관련 기업들도 인도와 다른 국제 시장에 공정무역 원료를 공급을 위한 생산자 개발을 목표로 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공정무역 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2019년, 소위 말하는 국제공정무역기구의 국가사무소가 없는 지역, 즉 새로운 시장에서 5백만 유로를 넘는 공정무역 프리미엄이 창출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66%가 증가된 수치였다. 공정무역 인증 제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세는 특히 코코아 품목에 대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이들 시장에서 판매로만 벌어들인 공정무역 프리미엄은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의 주도세를 비롯해 약 두 배로 뛰었다.



생태관광 책임자 Elcy Khatseane이 감귤, 와인용 포도, 차를 생산하는 남아프리카의 생산자 조합인 Bergendal Boerdery에서 열린 시음회에서 차를 따르고 있다.

지속가능한선택에대한유럽시장의수요증가

유럽 연합에 후원하는 3개년 프로젝트인 "Trade Fair, Live Fair" 는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12번인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유럽 19개국의 21개 협력업체가 모인 이 프로젝트는 공정무역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정부의 조치를 촉진하는 데 힘썼다.

농업부터 패션 공급망, 인권부터 기업 투명성까지 이 사업은 2017년부터 16개국의 범유럽 국민 인식 캠페인에 120만명 이상의 인구를 동원했다. EU에서 지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4천명 이상의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함께했다. 협력업체들도 'Who picked my tea'와 'Who made my clothes' 등의 캠페인에 힘입어 납품업체 명단을 공개한 41개의 업체를 포함하여 2천 여개의 업체에 이른다. 프로젝트의 영향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2020년 말에 발간이 될 예정이다.

공정무역과윤리적소비에대한대중의태도

'Trade Fair, Live Fair' 프로젝트는 구매자들의 윤리적 소비 선택과 그들의 구매 우선순위에 대한 기초연구를 지원했다.

이 연구의 문헌 검토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었던 유럽인의 약 1/3이 환경 레벨들이 구매 결정에 큰 역할을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유럽 5개국의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매자들은 식품회사들이 식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73%), 기업이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61%)에 대해 공개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일관적으로 연령, 소득, 성별에 관계없이 식품 브랜드가 전 세계의 빈곤층(84%), 환경 보호(88%), 성별 불평등(77%)을 해결하는 데에 행동하기를 원하였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2020년 말에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발표할 것이다.



인도 타밀나두(Tamil Nadu) 지역에 있는 Sivasailam Chamraj 중등학교 학생들이 공정무역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이 학교는 공정무역 인증 차 생산자 조합인 United Nilgiri Tea Estates에서 얻은 공정무역 프리미엄의 자금 지원을 받는다.



튀니지의 알함마(Al-Hammah)지역의 공정무역 인증 토마토 생산 조합인 Desert Joy SARL 농장에서 한 생산자가 토마토를 수확하고 있다.

4. 공정무역과 정부 정책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주요 정책 토론회에서 생산자들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파트너들과 함께 공정한 무역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 조합원의 대부분은 생계 수입과 임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책 입안자들이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의 참여를 포함한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협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1년간 국제공정무역기구가 이를 위해 만들어온 주요 성과들을 소개한다.

-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유럽연합(EU)에 대하여 다른 주요 초콜릿 산업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코코아에 대한 규제 접근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에 공동 서명했다.
- 2019년 11월 네덜란드, 로테르담(Rotterdam)에서 개최된 'The Only Way Is Up' 컨퍼런스와 2020년, 위트레흐트(Utrecht)에서 커피를 주제로 생계 소득 및 임금에 관련하여 개최된 두가지 행사에 참여하거나 주최하였다. 위 행사는 업계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주어진 문제에 대해 보다 진솔하게 논의하게 이끌었으며, 앞으로 나아갈 방법에 대해 모색하였다.
- 전 세계의 국제공정무역기구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코코아를 위한 독일, 스위스, 벨기에 및 네덜란드의 다수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이니셔티브의 의제, 목표 및 성과 지표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코코아를 위한 다른 주요 연합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더 넓은 측면의 국제적인 변화의 일부이다. 지난 2년간, 세계 코코아 컨퍼런스(World Cocoa Conference)와 국제커피기구(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가 협력하여 생계 소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책임을 선언하였다.
- 공정무역 옹호 사무소(Fair Trade Advocacy Office)와 제휴하여, 유럽연합의 지속가능한 조달을 위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와 경쟁법(독점금지법) 내에서 그 범위를 검토하여 각 부문간 합의의 일환으로 가격을 논의하기 위한 연구를 의뢰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무역과 관련된 아래 주제들에 대해 다른 지지자들과 함께 협력하였다.

- 2019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앞두고, 각국 정부에 공정한 무역 정책과 실행을 중요한 기후 변화 대응 방법으로 인식하기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서를 개발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공정무역 생산자들은 총회에 참석하여 정부와 다른 식품 공급망 이해관계자들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유럽연합이 2019년 2월 식품 및 농업 공급망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지침을 선택한 것과 더불어, 국제공정무역기구는 각 회원국에서 시행되는 정책들을 감시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였다.
- 'Trade Fair, Live Fair'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이 정당하고 지속가능한 섬유 공급망의 해결책으로 제안하기 위해 고안된 'Shadow 전략'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 전략은 노동조합, 환경, 공정 무역, 그리고 개발 단계에 걸친 60명의 서명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 2020년 초, 이탈리아 정부는 환경 및 '공정한' 지속가능성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공 조달 프로세스의 새로운 기준을 승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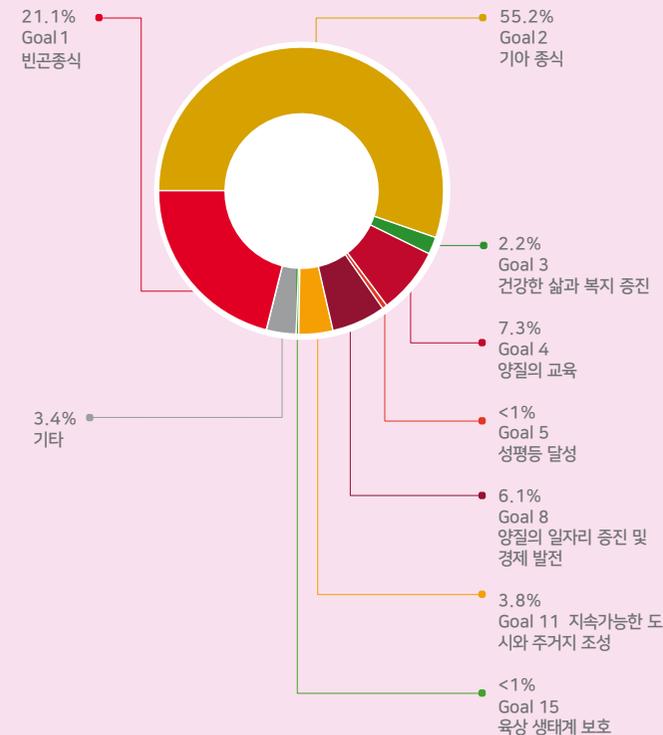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Fairtrade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공정무역을 통한 UN-SDGs 달성 관련 비디오를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http://fairtr.de/SDGs2020>

UN-SDGs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공정무역 프리미엄 항목

매년, 국제공정무역기구는 공정무역 생산자들과 노동자들이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정무역 프리미엄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조사하고 수치화하고 있다. 2018년도 조사에 따르면, 소작농들과 노동자들이 세계 식량 생산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기아 종식(SDG2)부분과 빈곤 퇴치(SDG1)부분에 중점을 두어 공정무역 프리미엄이 투자된 것으로 수치가 조사되었다.



반올림 표기로 인해 전체 지수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5. 안정적 글로벌 시스템 구축

공정무역 시스템은 소비자 시장과 생산자의 조직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데, 2011년 이래로 동일한 수준의 의사 결정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공정무역 시스템은 생산자의 목소리가 공정무역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도록 보장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의 모든 수준에서의 강력한 리더십과 협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지배구조 내에서 생산자와 노동자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20년에는 공정무역 기준 위원회에 노동자 측의 전문가의 석을 추가했고, 또한 중남미와 아프리카 생산자 조합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인권 자문위원회에도 몇 개의 생산자 관련 의석을 추가했다.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윤리 강령 및 모범사례

국제공정무역기구가 보다 강력한 시스템을 목표로 노력한 예로 2019년 중반에 개발 및 출시된 윤리 강령 및 모범 사례를 들 수 있다. 국제공정무역기구 총회에서 승인한 이 강령은 모든 공정무역 조직이 책임, 존중, 진실성, 그리고 파트너십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10가지 핵심 원칙을 개략적으로 담고 있다. 이 강령에서 다뤄진 이슈로는 재무관리, 불평사항 및 혐의, 아동 및 취약 성인 보호, 정보의 투명성, 이해 충돌, 좋은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 그리고 파트너십 관리 등이 있다. 모든 공정무역 조직은 이 강령을 채택하고 이에 따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정책을 개발하였다.

더욱 강화된 생산자 네트워크

유럽연합의 Framework Partnership Agreement의 자금 지원을 통해, 국제공정무역기구는 산하 세계의 대륙 별 생산자 네트워크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이행하였는데, 특히 여성과 젊은 인재들의 포용적인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되었다. 더불어,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산하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한다.

- 국제공정무역 아프리카 사무소(Fairtrade Africa): 지난 해의 이 기관의 주요 성과는 지역 이사회에서 하나의 대륙 이사회로 전환한 것을 들 수 있다. 28명의 국제공정무역기구 아프리카 이사회의 위원들은 새로운 지배구조, 준수 규칙, 그리고 의회와 의회의 절차 및 규칙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였다.
- CLAC: 지난 해 동안, 생산자 네트워크 내에서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6개국(콜롬비아, 에콰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브라질,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총 430명의 근로자들이 CLAC의 지배구조와 공정무역 시스템 내에서의 새로운 생산자 네트워크의 의사결정 역할에 대한 워크숍에 참여하였다. 이 밖에도, CLAC은 376명이 참여한 가운데, 12차례의 워크숍을 열어 성 불평등과 CLCA의 젠더 포용 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높였을 뿐더러, 생산자 단체 자체의 정책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NAPP: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NAPP(아시아-태평양 지역 공정무역 인증 생산자 조합 네트워크)는 특히 재무 및 프로젝트 관리를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장 직원들은 특히 소득을 창출하는 측면에서 그들의 기회를 평가할 수 있도록 생산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 관련 금융 가치 사슬 창출, 전략 및 설계에 있어서의 자체 역량을 구축했다. 다른 제품들 중에서도 특히 설탕과 면화의 생산자와 거래자들의 네트워크는 그들 공급망 내에서 최고의 사례를 공유하고, 각각 공정무역 인증 제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 기회를 확고화하기 위해 회의를 열기도 하였다.

보다 효율적인 협업을 위한 도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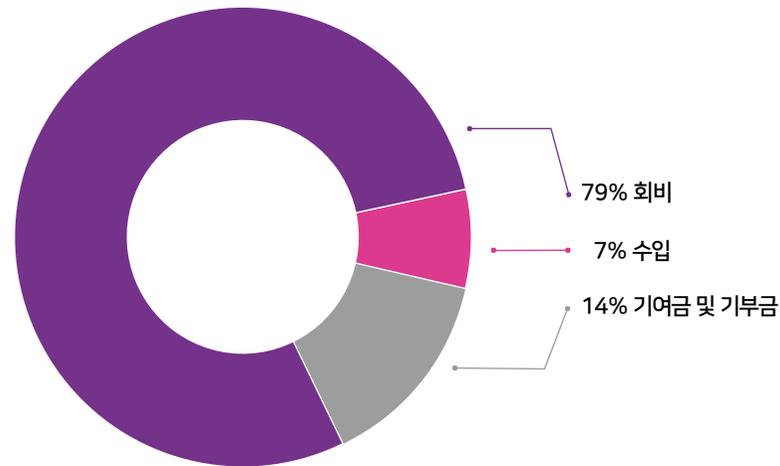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가 보다 강력한 시스템, 플랫폼, 데이터 수집 및 관리에 기여하며 생산자 및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정보 기술 플랫폼 평가는 협력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FairInsight" 라는 새로운 정보 보고 체계를 통해 국제공정무역기구 회원 조직은 시장 및 생산에 대한 데이터를 보다 신속하게 얻고,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데이터 중심의 계획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FLOCERT 감사자가 커피 나무를 검사하고 있다.

국제공정무역기구 회계보고서

수입



회비: 국제공정무역기구는 회원기관으로서 국제공정무역기구 국가사무소(NFO)로부터 회비를 받으며, 이는 기업들이 공정무역 마크를 자사 제품에 부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수수료 비용을 의미한다. 회비는 제한되지 않은 자금 후원이며 각 NFO들의 라이선스 비용의 백분율로 계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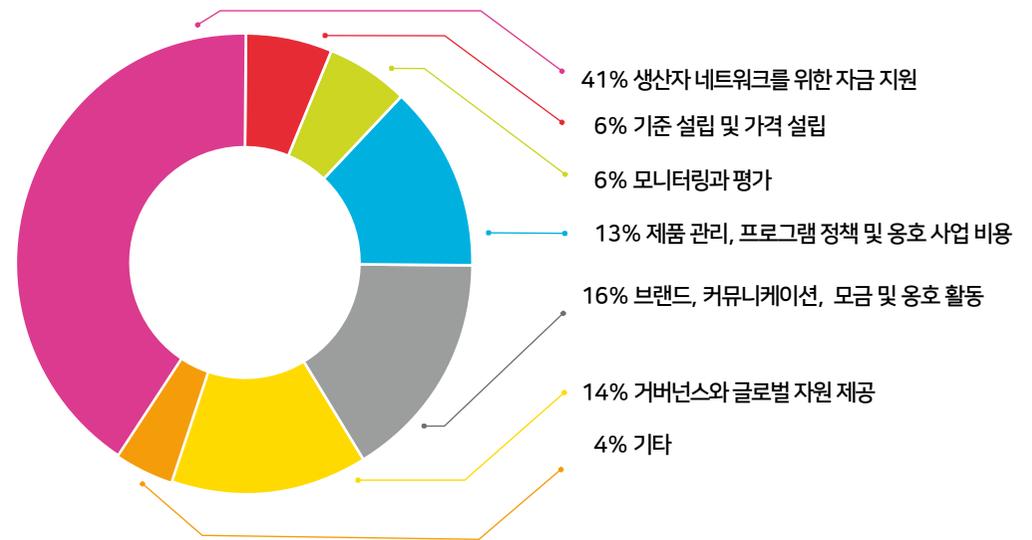
수입: 이 수치에는 해외 판매 및 국제 라이선스 수입 비용이 포함된다.

기여금 및 기부금: 보조금 지원이 포함된다.

2019년 결산서

아래에 요약된 주요 재무 수치는 내부 경영 보고서와 2019년 회계 감사 재무제표에서 추출된 수치이다. 국제공정무역기구의 회계 관행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계 관행과 독일 법률(KStG 및 HGB)을 준수한다.

지출



생산자 네트워크 자금: 3개의 대륙 별 공정무역 생산자 네트워크는 이 기금을 지원받아 해당 지역의 생산자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품 관리, 프로그램 정책 및 옹호 사업 비용: 제품 관리와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 수립에 관련한 비용과 인력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모금 및 옹호 활동: 여기에는 이러한 기능과 관련된 인력 외에도 파트너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포함된다.

거버넌스 및 글로벌 자원 제공: 이사회 및 총회 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더십팀, 재무, IT, 인력, 법률 서비스 및 국제 인증 기능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다.

수익 지표	2019 (€'000)	2018 (€'000)
전체 수익	27,700	21,423
전체 지출	25,026	19,577
투자 수익	0	0
소득세	297	111
세후 수익	2,377	1,735
이월 이익	406	0
변동 적립금	2,609	1,329
이익 잉여금	174	406

2019년 대차대조표(€'000)

	31.12.2019	31.12.2018		31.12.2019	31.12.2018
고정자산	1,373	1,226	자기 자본	6,589	4,213
무형고정자산	32	45	제한 및 지정 적립금	221	0
유형고정자산	178	18	일반준비금	6,195	3,807
금융자산	1,163	1,163	당해순이익	173	406
유동자산	12,439	10,953	총당금	2,455	891
수취채권	4,366	3,319	부채	1,540	1,278
기타 자산	135	111	공급 및 1,107개의 서비스 비용	1,315	
유동자금	7,938	7,523	기타 부채 및 171건 발생	225	
선급 비용	190	59	이연소득	3,418	5,856
합계	14,002	12,238	합계	14,002	12,238

2019년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재정 파트너 유럽연합 - DEAR 유럽연합 - SwitchAsisa 유럽연합 - Framework Partnership Agreement GIZ

국제공정무역기구의 이사회 멤버

Lynette Thorstensen, Chair (Independent)
 Melissa Duncan, Vice-Chair and Treasurer (NFO representative)
 Bill Barrett (NFO representative)
 Ian Bretman (NFO representative) F
 rank Harnischfeger (Independent)
 Uwe Hölzer (Independent)
 Mary Kinyua (Producer representative)
 Miguel Ángel Munguía Gil (Producer representative)
 Merling Preza Ramos (Producer representative) Gna
 nasekaran Rajaratnam (Producer representative) Ch
 ristian Varga (NFO representative)



Cover photo: Dah Oho Gboklela, a member of ECAKOOG cocoa cooperative in Côte d'Ivoire

Credits

Photos: Nana Anquah (p. 17 middle), Carlos Dubon (p. 7), José García (p. 12 right), Sean Hawkey (p. 21), Thorsten Kleinschmidt / filmreif.biz (cover), Christoph Köstlin (p. 6, 8 left, 9 bottom, 13), Tatiana Marin (p. 25), Cesar David Martinez (p. 12 left), Eduardo Martino (p. 9 left), Jeanelde Mouton (p. 22 bottom right), Arun Nag (p. 23 top), Siddarth Selvaraj (p. 9 right), James Sharpe (p. 11), Chris Terry (p. 14), Mary-Ann Weber (p. 22 bottom left), ACOPAGRO (p. 5 top), CLAC (p. 16, 22 top), Cooperativa de Caficultores del Alto Occidente de Caldas (p. 4), Fairtrade / Funnelweb Media (p. 18, 19, 23 bottom), Fairtrade Foundation (p. 15 left), Fairtrade International (p. 8 right), ITC (p. 17 right), NAPP (p. 15 right, 17 left), Oserian Development Company Ltd. (p. 5 bottom)

Layout: Dreimalig, Köln